

전쟁 위기감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 금, 2400달러 육박

(온스 당)

중동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국제 금 가격, 3거래일 연속 최고가
“귀금속 매매, 일생일대 기회 될 수도”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 가격이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온스 당 2400달러를 앞뒀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높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 압력이 더 거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온스 당 23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8.9달러(0.37%) 상승한 수준으로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전일인 지난해 10월 6일 온스 당 1845.20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반년 만에 55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3월 미 CPI가 연준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3.5%를 기록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금 가격은 CPI 발표 이후에도 거래일 평균 0.34%의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주시리아란 영사관 폭격 이후 확산한 전쟁 위



중동 정세 불안에 안전 자산인 금값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15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 직원이 골드바를 들어보고 있다. /뉴스1

기감이 13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 및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로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중동 위기의 전개에 따라 금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전문 매체 골드시크(GoldSeek)의 피터 스피나 사장은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금 가격은 모든 종류의 문제와 위험을 반영하며, 중동의 심각한 사건들이 빠르게 완화되지 않으면 전쟁 공포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며 “이는 귀금속 매매에 일생일대의 기회(buying opportunity of a lifetime)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사건 방향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금 가격은) 많은 구매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할 가

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BullionVault)의 아드리언 애쉬 연구소장은 “중앙은행의 구매 급증으로 시작된 금 가격 상승세가 지난주 중국 정부

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라 (변동요인이) 전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미국과 UN이 긴장 완화를 호소한 만큼, 테헤란(이란 행정부 소재지)은 문제가 일단은 종결됐다는 태도를 보였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금속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반등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전을 경계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방송인 채널12(Keshet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여러 보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모든 방안은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하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및 동맹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수출입 물가 3개월 연속 상승

중동정세 불안... 환율·유가 출렁
한달 새 수출입 물가 0.4%p ↑

수출입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화학제품과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이달 이란-이스라엘 관련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환율과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는 만큼 물가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3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137.85로 한달 전(137.24)과 비교해 0.4% 상승했다. 수입물가지수는 올해 1월(1.2%)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오른 이유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컸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2월 배럴당 80.88달러에서 지난달 84.18달러로 4.1% 상승했다. 이 영향으로 석탄·석유제품(1.0%), 광산품(1.0%), 1차 금속제품(0.7%) 등이 올랐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원유는 4.0%, 나프타는 1.9%, 커피는 4.7%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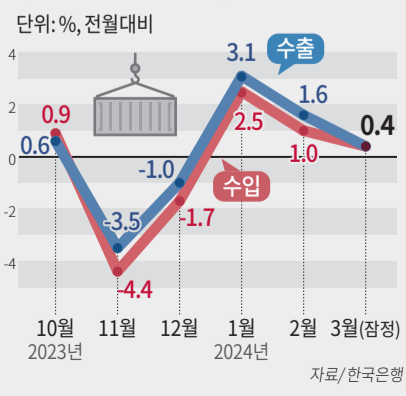
문제는 이달들어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으로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를 넘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2.10원 오른 1383.70원으로 달러 강세를 이어갔다. 수입물가는 시간을 두고 소비자물가로 이어지는 만큼 물가부담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

수출물가지수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3월 수출물가지수 120.89로 전달(120.39) 대비 0.4%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출물가도 올해 1월(1.7%)부터 3개월째 올랐다. 화학제품(1.1%), 컴퓨터·전자·광학기기(0.9%), 섬유·가죽제품(0.6%) 등이 오르면서 수출 물가를 끌어 올렸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최근 유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은 4월 물가에 반영될 것”이라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수출입 물가지수 증감률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국립부경대학교 창학 100년

지금까지의 찬란한 100년! 앞으로의 위대한 100년!

혁신 창학! 힘찬 도약! New Beginning, New Inspiration

반도체 · IT · 디지털금융 · AI · 로봇 · 바이오

주전공, 융합 · 학생설계 · 마이크로 전공

대연 · 용당 · 기장 · 고성 캠퍼스 인프라

첨단 신산업 분야 학문 혁신 선도

미래 융 · 복합 창의인재 양성

동남권 지 · 산 · 학 · 연 혁신 캠퍼스 조성